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日本語 接続助詞「ば」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崔 僖 俣

2013年 2月

日本語 接続助詞「ば」研究

指導教授 金 勝 漢

崔 僖 俣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2月

崔僖俣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年 2月

<국문 초록>

日本語 接続助詞「ば」研究

최 희 숙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김 승 한

접속조사 「ば」는 「と」, 「たら」, 「なら」와 더불어 전건과 후건의 접속관계로 조건표현을 나타낸다. 이 각각의 형식은 서로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상황에 따라 교체가 가능한 경우와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교체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형식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と」, 「たら」, 「なら」, 「ば」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접속조사 「ば」는 전건과 후건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조건표현의 구문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비조건표현의 구문에도 사용되며, 각각의 용법에 대한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접속조사 「ば」의 구문만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특징을 명확히 하기 위해, 「ば」만이 사용가능한 경우와 「ば」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건표현과 비조건표현의 의미용법별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하고, 각 의미용법과 호응하는 문말표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 1) 「ば」는 조건표현과 비조건표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으며, 그중에서 전건과 후건이 인과관계로 결합하는 조건표현을 나타내는 「ば」의 용법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반복·습관조건, 가정조건, 확정조건, 반사실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비조건표현은 전건과 후건이 인과관계를 지니지 않는 구문으로 열거용법과 전치용법이 있었다.

- 2) 조건표현에서 일반조건은 전건의 성립에 의해 필연적이고 초시간적으로 후건이 성립하는 조건표현이므로 문말에는 「夕형」은 올 수 없고, 「ル형」만이 나타났다. 반복·습관조건은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전건의 성립하면 습관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현재 사태에 대한 경우의 문말에는 「ル형」, 과거의 사태에 대한 경우의 문말에는 「夕형」이 나타났다. 가정조건은 미실현의 사항과, 실현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후건은 미실현의 사항을 나타내며 전건이 미실현 사항에 대한 조건표현인 경우는 전건의 성립이 불확실한 경우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성립하게 되는 사항을 가정하는 용법이 있었다. 확정조건은 발화시점 이전에 이미 전건과 후건이 실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건의 보는 행위, 듣는 행위 등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항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건의 술어는 「見る」 「聞く」 등으로 지각동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건은 후건의 계기, 근거 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사실조건은 전건에 사실과 반대되는 사항을 가정하여 후건에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는 구문으로 문말에는 「のに」, 「～だろう」, 「～かもしれない」, 「～はずだ」, 「～ところだ」 등을 동반하여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불만족과 유감을 나타낸다. 또한 바라지 않은 과거 사태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도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 3) 비조건표현에서 열거용법은 유사한 사항 혹은 대조적인 사항을 나열하여 서술하는 표현이다. 전건에 인물·사물의 존재나 속성의 유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ある, いる」 등과 같은 상태성 술어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건과 후건이 대등한 관계로 나열되고 있었다. 그리고 전치용법은 전건과 후건이 인관관계라기 보다는 후건에 대한 예고, 한정, 보충 설명을 하거나, 주제 혹은 근거 제시, 관점 등을 나타내었다.
- 4) 「ば」 구문이 지니는 독자적인 특징을 「ば」만 사용가능한 구문과 「ば」 사용불가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열거용법에서 문말의 시제가 「夕형」인 경우는 「ば」를 제외한 「と」, 「たら」, 「なら」는 사용할 수 없으며, 「～こそ」를 동반하여 이유를 강조하는 표현과 「～ほど」를 동반하여 전건의 진행에 따른 후건의 진행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ば」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동일하고 전건이 동작성 술어인 경우는 문말에

명령 등의 표현이 오는 경우와 후건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오는 경우, 그리고 발견의 용법에는 「ば」구문은 사용할 수 없었다.

- 5) 「ば」구문의 의미용법별 사용빈도와 문말과의 호응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용빈도 면에서 조건표현이 78%, 비조건표현이 22%로 나타났으며, 의미용법별로 가정조건, 전치용법, 일반조건, 확정조건, 열거용법, 반복·습관조건, 반사실조건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호응하는 문말표현과의 사용빈도는 確言의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概言, 説明이 각각 11%, 10%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밖의 可能, 疑問, 當為를 제외하면 사용빈도율이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금지표현과는 호응하지 않았다.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1 연구목적	1
1.2 선행연구	3
II. 조건표현	5
2.1 일반조건	5
2.2 반복·습관조건	7
2.3 가정조건	9
2.4 확정조건	12
2.5 반사실조건	14
III. 비조건표현	17
3.1 열거용법	17
3.2 전치용법	20
IV. 접속조사 「ば」 구문의 특징	24
4.1 「ば」 만 사용가능한 구문	24
4.2 「ば」 사용불가 구문	27
V. 접속조사 「ば」 구문의 사용빈도	30
5.1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	30
5.2 호응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빈도	32

VI. 결론	35
참고문헌	38
예문출전	40
Abstract	41

<표 목차>

<표 1> 각 교과서별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1)	30
<표 2> 각 교과서별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2)	31
<표 3> 각 교과서별 접속조사 「ば」와 호응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빈도	33

<그림 목차>

<그림 1> 접속조사 「ば」의 사용빈도	32
<그림 2> 접속조사 「ば」와 호응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빈도	34

I. 서론

1.1 연구목적

접속조사 「ば」는 「と」, 「たら」, 「なら」와 더불어 전건과 후건의 접속관계로 조건표현을 나타낸다. 이 각각의 형식은 서로 연속성을 지니면서도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상황에 따라 교체가 가능한 경우와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교체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형식에 따라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달라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と」, 「たら」, 「なら」, 「ば」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접속조사 「ば」의 경우, 「たら」, 「なら」, 「と」의 용법과 유사한 면이 있으면서도 「ば」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 (1) a. 譲る者もなければ、争う者もない。
- b. * 譲る者もないと、争う者もない。
- c. * 譲る者もなかったら、争う者もない。
- d. 譲る者もないなら、争う者もない。 (三四郎)

- (2) a. なまじい保護を受ければこそ、こんな兄に頭を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
 - b. * なまじい保護を受けるとこそ、こんな兄に頭を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
 - c. * なまじい保護を受けたらこそ、こんな兄に頭を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
 - d. * なまじい保護を受けるならこそ、こんな兄に頭を下げなければならない。
- (ノ一下 p.201)

- (3) a. * 車を備って、中学校へ来れば、もう放課後で誰も居ない。
- b. 車を備って、中学校へ来たら、もう放課後で誰も居ない。 (坊っちゃん)

(1, 2)의 경우처럼 「ば」가 사용가능한 구문이 있는가 하면 (3)과 같이 「ば」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는 구문도 있다. 이것은 「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ば」형식의 특징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と」, 「たら」, 「なら」, 「ば」의 형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각 형식을 서로 비교분석하여 용법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연구 범위가 일반조건, 가정조건, 확정조건, 반사실조건 등 조건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른 형식과의 비교분석을 하는데 있지 않고, 접속조사 「ば」구문에서의 전건과 후건과의 관계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접속조사 「ば」는 전건과 후건이 인과관계에 있는 조건표현의 구문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비조건표현의 구문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접속조사 「ば」의 용법을 조건표현과 비조건표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접속조사 「ば」의 구문만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특징을 명확히 하기위해, 「ば」만이 사용가능한 경우와 「ば」를 사용하면 비문이 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조건표현과 비조건표현의 의미용법별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하고, 각 의미용법과 호응하는 문말표현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필요한 예문은 일본 소설, 일본 신문 사설, 日本文部省検定済教科書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총 10권, 중학교 국어교과서 총 9권에서 발췌했으며, 필요시 문형사전의 예문과 타 논문의 예문을 재인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용빈도조사에서는 日本文部省検定済教科書인 일본 중학교 국어교과서 총 9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1.2 선행연구

일본어 접속조사 「ば」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로 주절과 종속절로 구성이 된 복문에서, 「ば」구문의 종속절이 주절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仁田義雄(1987)는 「ば」구문은 従属接続節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益岡隆志(1997), 野田尚史·益岡隆志·佐久間まゆみ·田窪行則(2001), 田中寛(2004), 前田直子(2009) 등은 「ば」구문은 복문구조에서 連用節에 속하며 조건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野田尚史·益岡隆志·佐久間まゆみ·田窪行則(2001)은 「ば」형식의 주된 용법은 시간을 초월하여 성립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용법과 전건이 가정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ば」구문의 특징을 전개해 나갔다.

두 번째로는 조건표현의 대표적인 형식인 「ば、と、たら、なら」의 비교분석이다. 이 네 가지의 형식은 서로 다른 의미용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같은 의미용법을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의미용법이라 하더라도 타 형식과의 교체에 의해 어감 또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를 분석하여 각 형식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松下大三郎(1930)가 「ば」는 分説, 理論的이라고 하고 「と」는 單説, 實際的이라고 설명하여, 接続助詞 「ば」를 「と」와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国立国語研究所(1951)는 「ば、と」에 대한 의미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蓮沼昭子(1993)는 「たら、と」를 사실적인 용법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田中寛(2010)는 조건문 전체로부터 「ば」구문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세 번째로 「ば」구문과 문말표현과의 관점에서는 国立国語研究所(1964)의 「ば」의 문말제한에 관한 조건제시를 시작으로, 浜崎なおみ(1999), 堀恵子(2004), 仁田義雄(2009) 등이 문말표현과의 호응관계를 중심으로 조건표현의 특징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豊田豊子(1985)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통하여 조건표현의 일반적인 용법을 실생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찰

하였으며, 坂原茂(1993)은 語用論의 관점에서 조건문을 분석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문론, 의미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문말표현과의 호응 관계 및 사용실태 등의 관점에서 「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II. 조건표현

조건표현은 접속조사 「ば」에 의해 전건과 후건이 접속되었을 때, 그 관계가 인과관계인 구문이다. II장에서는 조건표현을 의미용법에 따라 일반조건, 반복·습관조건, 가정조건, 확정조건, 반사실조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전건이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후건이 성립한다는 인과관계의 표현이다.

(4) 春が来れば花が咲く。 (教育-中2 p.300)

(5) 10を2で割れば5になる。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p.477)

(6) 北を背に南に向かって右と左に指させば、左は東、右は西。

(光村-小6 p.150)

(4)는 「春が来る」라는 전건이 성립하면 후건인 「花が咲く」가 성립하는 자연의 법칙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5)와 같이 10을 2로 나누게 되면 5가 되는 것은 수리적인 계산에서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이며 (6)은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4~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조건은 특정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논리적, 법칙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특정 개인의 경험이나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조건은 사물의 도리를 나타내는 것¹⁾으로 논리적인 서술이나 수식, 또는 (7~10)처럼 속담이나 격언 등과 같은 일반적인 법칙에 사용되어진다.

1) 益岡隆志(2000), 『日本語文法の諸相』, くろしお出版, p.154.

- (7) 楽あれば苦あり。 (光村一小3下 p.75)
- (8) 犬も歩けばぼうに当たる。 (光村一小3下 p.75)
- (9) 所変われば品変わる。 (光村一小4上 p.92)
- (10) 阿蘇のけむりが西になびけば雨、南になびけば晴れ。 (光村一小5 p.133)

일반조건은 전건이 성립하면 언제나 후건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시점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과거·현재·미래의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시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후건의 문말에는 과거형인 「夕형」은 올 수 없고 현재형인 「ル형」만이 나타난다. 즉 일반조건문의 구문은 「~すれば~する」와 같은 문형을 취한다.²⁾

2) 前田直子(2009), 『日本語の複文-条件文と原因・理由文の記述的研究-』, くろしお出版, p.48.

2.2 반복·습관조건

반복·습관조건은 전건이 성립하면 반드시 후건이 성립한다고 하는 관계가 반복적·습관적으로 성립하는 조건문이다. 砂川有里子 외 7인은 반복·습관조건에 대해 전건이 성립하면 그때마다 후건이 성립하거나, 전건을 행하면 어김없이 후건을 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³⁾

(11) 祖母は天氣がよければ毎朝近所を散歩します。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p.477)

(12) おれが行くたびに、おりさえすれば、何くれともてなしてくれた。

(光村-中1 p.273)

(11)에서 「天氣がよい」라는 전건이 성립하면 「散歩する」라고 하는 후건이 반복적·습관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반복·습관조건을 일반조건 내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복·습관조건은 주체가 「祖母」처럼 특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반조건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건과 후건이 필연적·초시간적인 특징을 지닌 일반조건과 달리, (12)에서는 문말에 「夕형」을 취하여 「내가 갈 때마다 있기만 하면 뭐든 대접해주었다」로 과거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습관조건과 일반조건은 사항의 반복을 나타내는 조건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복·습관조건은 주체가 특정되어진다는 점과, 「ル형·夕형」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조건과 구별된다.⁴⁾

(13) 出て歩きさえすれば、必ず誰かに逢う。

(坊っちゃん)

3)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pp.477~478.

「前件が成立するとその度に後件が成立する」, 「前件を行うと決まって後件が行う」

4) 前田直子(2009), pp.48~49. 「主体が特定されたり、テンスが分化する。」

(14) みんな私にいろいろなものを押しつけるんだもの。顔をあわせればああだこうだってね。

(ノ一下 p.43)

(15) だんだん聞いてみると、与次郎は従来からこの雑誌に関係があつて、ひまさえあればほとんど毎号筆を執っているが、その代り雅名も毎号変えるから、二、三の同人のほか、だれも知らないんだと言う。

(三四郎)

(13)은 특정 주어가 「나가서 걷기만 하면」이라는 동작을 행하면 그때마다 「반드시 누군가를 만난다」의 후건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15)는 「얼굴을 대면하면」 「한가하기만 하면」이라는 전건의 상황이 성립하면 「이렇다 저렇다 모두 나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강요한다」, 「거의 매호(매 발간호) 붓을 잡고 있다」라는 후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13~15)는 「~ば~する」의 구문형식을 취하여 현재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16) おなかがすけばバナナを食べ、淋くなれば二人で抱きあって眠ったの。(ノ一上)

(17) 都合がよければ帰る時にもやはりいっしょに帰りました。(心)

(16, 17) 또한 전건인 「배가 고프면」 「외로워지면」, 「형편이 좋으면」이 성립할 때마다 후건인 「바나나를 먹었다」 「둘이서 껴안고 잠들었다」, 「귀가 시에도 역시 함께 집으로 갔다」가 반복적으로 성립되고 있다. (16, 17)은 구문의 형식이 「~ば~した」로 과거의 습관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반복·습관조건은 문말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기본형을 취하여 특정 주어의 현재의 습관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와 문말에 과거형이 사용되어 「과거에는 항상, 반드시 그러하였다」, 「그러하면 반드시 그러하였다」라고 특정의 주어의 과거 습관이나 과거의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성립된 사항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⁵⁾

5)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p.478.

2.3 가정조건

가정조건은 특정 사물·인물에 대해 전건이 성립하면 후건이 성립한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가정조건에서의 전건은 미실현의 경우와 이미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후건은 미실현의 사항을 나타낸다.⁶⁾

(18) あの坂を上れば、海が見える。 (教育-中1 p.14)

(19) ここにいれば大丈夫、どんなことから木が守ってくれる。 (光村-中1 p.96)

(18)은 「저 고갯길을 오르면 바다가 보인다」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항을 전건에 제시하고 그로 인해 성립하게 되는 후건을 서술하고 있다. (19)는 「여기에 있으면 괜찮아, 어떤 일로부터라도 나무가 지켜줄 거야」로 전건인 「ここにいれば」는 화자가 발화시점에서 이미 실현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후건 「どんなことから木が守ってくれる」는 아직 실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전건이 미실현인 경우도 전건의 성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와 전건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20) すみやかに修正協議を進めれば合意が不可能な日程とは言えまい。

(毎日-2012年06月05日)

(21) あなたがこうしろって言えば私なんだからするわよ。 (ノ一下 p.205)

(22) 君が止めたければ、止めてもいい。 (心)

(23) 歩ければ、もう少しお歩きなさい。 (三四郎)

(24) ほしければそっちから言ってきてくれ。 (三四郎)

(20)은 「신속하게 수정협의를 진행시키면 합의가 불가능한 일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로 미실현의 사항으로 성립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전건 「修正協

6)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p.478.

仮定条件は特定の事物・人物について「前件が成り立てば後件が成り立つ」という関係を表す。

議を進めれば」를 가정하고 있으며 후건의 문말에는 추측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21)은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 역시 할게요」로 화자 자신도 발화시점에 「こうしろと言えば」라는 전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화자가 가정하는 전건 「こうしろと言えば」가 성립하면 후건인 「するわよ」가 성립한다는 구문으로 문말에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22)는 그만두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대가 그만두고 싶으면」, (23)은 걸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歩ければ」, (24)는 원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ほしければ」 등 성립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전건에 제시하여 그로 인해 후건이 성립한다는 구문이다.

(25) もし今回の改革が理念に沿って実現すればとても大きな転換だ。

(毎日新聞2012年06月07日)

(26) 仮に,これを普通の音訓で読めば,「チクトウ」か「たけがたな」で,「竹」

と「刀」を分けて読むことができます。 (教育-中1 p.195)

(25)는 「만일 이번 개혁이 이념에 따라 실현하면 매우 큰 전환이다」, (26)은 「가령, 이것을 보통의 음훈으로 읽으면, チクトウ이나 たけがた나로 竹와 刀를 나눠서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今回の改革が理念に沿って実現すれば」·「これを普通の音訓で読めば」보다는 (25, 26)처럼 전건에 「もし」, 「仮に」를 동반한 「もし今回の改革が理念に沿って実現すれば」·「仮に,これを普通の音訓で読めば」인 경우가 더욱 가정표현이 강해진다.

따라서 전건이 미실현의 사항에서 성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조건 「ば」와 호응하는 진술부사 「もし」, 「仮に」가 동반하게 되면 전건의 가정성(仮定性)이 높아진다.

다음은 전건이 미실현의 사항 중 성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연히 성립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27) 今月末になればできる見込みでもあるのか。 (三四郎)

(28) 三月になれば暇になるし、是非君に会いに行きたい。 (ノ一 p.168)

(29) あしたになれば、少しは忘れるから。 (学校-中1 p.40)

(30) 新年になればルントウ(閏土)がやって来る。

(光村-中3 p.111)

(27~30)의 전건은 「今月末になれば」, 「三月になれば」, 「あしたになれば」, 「新年になれば」로 「이번 달 말」, 「3월」, 「내일」, 「새해」 등 미래의 어느 한 특정시간에 이르는 경우를 전건에 가정하고 있는 경우로 이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가정한 특정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사항을 후건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립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을 가정하는 경우, 益岡隆志는 이를 현실화 이전의 사항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사항의 실현이 확실한 경우로 예를 들면 「明日になれば、結果が分かる」와 같은 표현에 한정된다고 하고 있다.⁷⁾

(28) ' a. 三月になれば暇になるし、是非君に会いに行きたい。

b. * もし三月になれば暇になるし、是非君に会いに行きたい。

c. * 万一三月になれば暇になるし、是非君に会いに行きたい。

d. * 仮に三月になれば暇になるし、是非君に会いに行きたい。

(28)' 는 「3월이 되면 한가해지고, 꼭 그대를 만나러 가고 싶다。」로 전건의 성립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성립여부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진술부사 「もし」, 「万一」, 「仮に」를 동반하면 비문이 된다.

7) 益岡隆志(1993),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p.9.

現実化以前の事態を表せるのは、「明日になれば、結果が分かる。」のように事態の実現が確実な場合に限られるのであり、それ以外の場合は仮定的な意味が現れやすい。

2.4 확정조건

砂川有里子 외 7인은 확정조건에 대해 전건이 성립한 장면에서 후건을 새롭게 인식했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⁸⁾

- (31) 「楽しかった」と緑は言った。「また今度行きましょね」
「何度見たって同じようなことしかやらないよ」と僕は言った。
「仕方ないでしょ、私たちだっずっと同じようなことやってるんだもの」
そう言われてみればたしかにそのとおりだった。 (ノ一下 p.142)

(31)은 「우리들은 줄곧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걸」이라는 상대의 말을 듣고 나서 확실히 그 말대로 인 것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다. 즉 전건인 「そう言われてみれば」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항으로 후건인 「たしかにそのとおりだった」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32) 見れば何にも食べていないようだ。 (学校-中1 p.111)

(32)는 발화시점 이전에 전건인 「見れば」가 실현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건의 성립으로 후건인 「何も食べていないようだ」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32)의 후건의 문말의 「~ようだ」는 화자의 주관적 추량표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전건인 「見れば」를 근거로 하여 후건인 「何も食べていない」를 추측하고 있다.鈴木忍은 확정조건은 전건이 발화이전에 성립해 있고 후건에 대한 조건으로서 계기, 근거, 이유 등이 되는 사항을 나타내는 것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3) 見れば、汪倫が村人たちと手をつなぎあい、足踏みして調子をとりながら、歌を歌って、自分を見送ってくれるのであった。 (学校-中3 p.285)

8) 砂川有里子 외7인(1998), p.484.

9) 鈴木忍(1978),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③ 文法1』, 凡人社, p.212.

- (34) 何も知らずに見れば、それは、ただの石ころだが、明らかにそれは墓であった。
 (教育-中1 p.185)
- (35) 見れば、目を異様に光らせて、まっさおな顔をしている。 (学校-中3 p.39)
- (36) なんともかとも美しい娘が、ふぶきの中に、ぼつつら立っておった。聞けば、旅
 の者だが、道に迷って、雪の中をようやくここまで来たと言う。
 (光村-小5 p.254)

(33)의 후건인 「왕륜(汪倫)이 마을사람들과 서로 손잡고, 발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자신을 배웅해주는 것이었다。」와 (34)의 후건인 「그것은 평범한 돌맹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무덤이었다。」는 화자의 보는 행위가 성립한 상황에서 새롭게 인식한 사항으로 문말에는 「夕형」이 나타나고 있다. (35)도 화자의 보는 행위로 말미암아 인식한 후건을 표현하고 있는데, 문말에는 「~テイル」의 형태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36)은 발화이전에 묻는 행위로 알게 된 사실인 「여행자인데 길을 헤매어 눈 속을 겨우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다」를 후건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문말은 「ル형」을 취하고 있다. (33~36)의 문말은 「夕형」, 「~テイル형」, 「ル형」으로 발화이전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건의 술어는 「見る」, 「聞く」 등으로 지각동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확정조건의 전건과 후건은 발화이전 이미 실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건에서 보는 행위, 듣는 행위 등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항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2.5 반사실조건

반사실조건은 전건과 후건에 사실과 반대되는 사항을 가정하여 그것으로 나타나는 귀결을 말하는 것이다¹⁰⁾.

(37) このままずっと雨が降りつづけばいいのにと僕は思った。 (ノ一下 p.30)

(37)은 「이대로 계속 비가 내리면 좋을텐데 라고 나는 생각했다」로 전건인 「このままずっと雨が降りつづく」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화자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건의 성립을 희망하는 화자의 심리를 반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즉 (37)은 실현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을 일어나지 않은 사항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8) 茶代なんかやらなければよかった。 (坊っちゃん)

(39) あなたがいなければ、この電蓄はこわれるような運命にならなかった。
(学校-中2 p.93)

(40) ゆっくりと聞けば、ちゃんとわかることでした。 (光村-小3 p.99)

(41) 次郎も、俊三のように、生まれたときから母親の手で育てられれば、こんなことには
なら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 (学校-中1 p.226)

(38~41)의 실제 일어난 사항은 「차값을 주었다」, 「당신이 있었다」, 「충분히 듣지 않았다」, 「어머니 손에 양육되지 않았다」로 이러한 사항으로 일어나게 된 결과에 대한 불만족,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일어나지 않은 사항인 「茶代なんかやらなかった」, 「あなたがいなかった」, 「ゆっくり聞いた」, 「母親の手で育てられた」을 가정하여, 그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후건에 화자가 원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 반대의 사항을 가정하여 얻어지는 후건 또한 사실과 반대의 사항으로, 결국에는 화자가 희망하는 사항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10)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193.

즉 반사실조건은 전건과 후건이 모두 사실과 반대되는 사항이다. 전건에 일어
나지 않은 사항을 가정하여 후건에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지만 전
건의 반사실적인 사항에 대한 후건 또한 반사실로 결국 희망하는 바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다.

(42) 赤シャツの行く所なら、野だは必ず行くに極っているんだから、今さら驚ろきもしな
いが、二人で行けば済むところを、なんで無愛想のおれへ口を掛けたんだろう。

(坊っちゃん)

(43) 私はその時自分の考えている通りを直截に打ち明けてしまえば良かったかも知れま
せん。

(心)

(44) つまらない、よせばいいのに思った。

(光村-中1 p.269)

(45) まえからわかっていれば、例の佐々木でも頼むはずだったが、今からではとても間
に合わない。

(三四郎)

(42~45)의 후건에는 각각 「済むところを」, 「良かったかも知れません」, 「いいのに
と思った」, 「頼むはずだったが」 로 문말에 「ところだ」, 「のに」, 「~かもしれ
ない」, 「~はずだ」 등이 나타나고 있다. 반사실조건의 후건에 자신의 희망하는 반
사실적인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역접의 접속조사 「のに」나, 반사실적인 가정에
서부터 나오는 사항을 개언(概言)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문말표현인 「~だろう」,
「~かもしれない」, 「~はずだ」 등이나, 「ところ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¹¹⁾

(46) 私はぜひともそこを通り越して、明るい所まで行かなければ気が済まなかった。

(心)

(47) 私は強いても何かの事情を仮定して先生の態度を弁護しなければ不安になった。

(心)

(48) 野田、谷垣両氏のコンビでなければ今回の合意は実現しなかっただろう。

(読売-2012年8月11日)

11)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p.193.

(46)은 「밝은 곳까지 가지 않으면 기분이 풀리지 않는다」이지만, 역으로 「기분을 풀기 위해서는 밝은 곳까지 가야했다」로 화자가 바라고 있는 사항을 역으로 표현하고 있다. (47)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선생님의 태도를 변호해야만 했다」라는 화자의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48)은 「노다(野田), 다니가키(谷垣) 두 사람이 콤비가 아니었다면 이번 합의는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로 이번 합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만족감과 「노다(野田), 다니가키(谷垣) 두 사람이 콤비여서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

희망하는 사항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화자의 후회, 안타까움 등의 심리를 동반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즉 나쁜 사항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와 같은 화자의 안도의 감정이 나타난다.¹²⁾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반사실조건문에서는 실현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감정뿐만 아니라, 바라지 않은 과거 사항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화자의 안도의 감정 등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12)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p.482.

Ⅲ. 비조건표현

접속조사 「ば」의 용법 중에는 가정성(假定性)도 인과관계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 거의 대부분이 고정적이고 관용구적이기 때문에 「조건」과는 별개의 표현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당하고 여겨진다.¹³⁾

따라서 Ⅲ장에서는 접속조사 「ば」로 연결이 된 전건과 후건이 인과관계가 아닌 구문을 비조건표현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열거용법과 전치용법의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열거용법

열거용법은 전후관계가 조건성도 인과관계도 가지지 않고, 단지 전후의 사항을 열거하여 서술하는 용법이다.

(49) 豪華とは言えないまでもかなり立派なアパートで、小さなロビーもあればエレベーターもついていた。 (ノ一下 p.121)

(50) Kの口にした昔の人とは、無論英雄でもなければ豪傑でもないのです。 (心)

(51) 自ら食べ物を探し求めなければならぬ野生の動物と違って、人間のように虫歯にもなれば、歯槽膿漏にもなる。 (教育-中3 p.118)

(52) おれは、きみに何かしてやる義務もなければ責任もない。 (学校-中2 p.88)

(49)는 「작은 로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구비되어 있었다」로 아파트에 속해 있는 것의 존재유무를 나타내고 있다. (50)은 「옛 사람은 영웅도 아니고, 호걸도

13) 前田直子(2009), p.51.

아니다」로 옛 사람에 대한 성향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51)은 「충치가 되기도 하고 치조농루(齒槽膿漏)가 되기도 한다」, (52)는 「의무도 책임도 없다」로 유사한 사항을 나열하여 강조하고 있는 구문이다.

- (53) 文には、組みたての簡単なものもあれば、複雑なものもあります。
 (学校-中2 p.251)
- (54) はしこい人もいれば、のんきな人もいる。
 (教育-中3 p.156)
- (55) もちろんあまりおそくなつては困りますが、早く帰る場合もあれば、おそく帰る場合もあつていいと思います。
 (学校-中2 p.132)

(53)은 「간단한 것도 복잡한 것도 있다」로 文의 상반되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고, (54)는 「민첩한 사람도 느긋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상반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55)는 「일찍 귀가하는 경우와 늦게 귀가하는 경우」로 각각 상반되는 두 가지 사항을 대조적으로 나열하는 경우이다. (53~55)에서 전건과 후건의 술어는 모두 「ある、いる」처럼 같은 술어가 나타난다.

(49~55)에서처럼 열거용법에서는 두 가지 사항, 즉 어떤 인물, 사물 등의 존재 유무 혹은 속성의 유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ある、いる」등 주로 상태성 술어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¹⁴⁾ 그러나 (56, 57)과 같이 동적인 술어를 사용하는 예도 있었다.

- (56) それはわれわれを打ちのめしもすれば、またわれわれを鍛えもするのである。
 (学校-中2 p.180)
- (57) 玄朗のほうは、死んだようになって、ものも言わなければ、からだも動かさなかった。
 (学校-中3 p.305)

(56, 57)의 구문은 각각 「우리들을 때려눕히기도 하고 우리들을 단련시키기도 한다」, 「말도 하지 않고, 몸도 움직임이 없었다」로 (56)의 전건과 후건에는 「打ちのめしをする」·「鍛えをする」, (57)의 전건과 후건에는 「ものを言う」·「から

14) 前田直子(2009), p.51.

だを動かす」와 같은 동적인 술어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58) ここには、目のさめるような事件もなければ、感動の場面といったものもありません。

(学校-中2 p.94)

(59) マス-コミはもろ刃にもたとえられる。扱いかたによっては、毒にもなれば薬にもなるのだ。

(学校-中3 p.206)

(60) 楽しさの出会いがあれば、苦しみに見舞われることもある。 (教育-中3 p.70)

(61) 喜びがあれば、悲しみもあろう。 (教育-中3 p.70)

열거용법의 구문은 일반적으로 (58, 59)와 같이 「~も~ば、~も」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60, 61)과 같이 「~が~ば、~も」의 형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52) ' a. おれは、きみに何かしてやる義務もなければ責任もない。

b. おれは、きみに何かしてやる責任もなければ義務もない。

c. おれは、きみに何かしてやるも義務ないし、責任もない。

(53) ' a. はしこい人もいれば、のんきな人もいる。

b. のんきな人もいれば、はしこい人もいる。

c. はしこい人もいるし、のんきな人もいる。

(52' b, 53' b)는 (52, 53)의 전건과 후건을 바꾼 구문이다. 열거용법은 유사한 사항을 나열하는 경우와 상반되는 사항을 나열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어느 쪽도 전건과 후건이 대등한 관계로 나열되고 있다. 그래서 전건과 후건을 바꾸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또한 (52' c, 53' c)와 같이 병렬표현을 나타내는 접속조사 「し」를 사용한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다.¹⁵⁾

15)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p.487.

3.2 전치용법

鈴木忍는 전치(前置)라는 것은 후건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전건으로, 후건을 나타내는 사항은 객관적인데 반해, 전건은 화자가 무언가의 제시를 하는 것¹⁶⁾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2) 僕はペンキを塗っている途中でふと緑のことを思い出した。考えてみれば僕はもう三週間近く緑と連絡をとっていないし、引っ越したことさえ知らせていなかったのだ。

(ノ一下 p.169)

(63) 死はいつか確実に我々をその手に捉える。しかし逆に言えば死が我々を捉えるその日まで、我々は死に捉えることはないのだ。

(ノ一上)

(64) 養家から出してもらった学資は、実家で弁償する事になったのです。その代り実家の方でも構わないから、これからは勝手にしろというのです。昔の言葉でいけば、まあ勘当なのでしょう。

(心)

(65) 日本選手団は、金7、銀14、銅17の計38個のメダルを獲得した。……

ぜいたくを言えば、金メダルが少なかった。16個だったアテネ五輪の半数以下にとどまった。

(読売-2012年8月14日)

(62)는 「나는 페인트를 칠하면서 미도리(綠)에 대해 생각했다. 생각해 보면 나는 3주간 가까이 미도리(綠)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이사한 것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로 앞에 언급된 사항인 「僕はペンキを塗っている途中でふと緑のことを思い出した」를 바탕으로 하여, 「考えてみれば」의 전치표현으로 인해 후건에는 미도리(綠)와 관련된 사항이 서술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63)의 경우도 「逆に言えば」의 전치표현으로, 「死はいつか確実に我々をその手に捉える」라고 전술된 내용과 상반되는 사항이 후건에 서술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逆に言えば」의 전치표현으로 후건에 서술될 내용이 앞서 서술된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한정되

16) 鈴木忍(1978), p.210.

「後件、すなわち主文とは次元を異にしている前件をいうのである。」

어지고 있다. (64)는 「昔の言葉でいえば」의 전치표현으로, 「양가로부터 받은 학비는 생가에서 변상하기로 된 것이다. 그 대신 생가에서도 개의치 않을 것이니 앞으로 멋대로 하라는 것입니다」라고 전술된 사항을 다시 옛말로 후건에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65)는 일본선수단이 획득한 메달에 대해 언급하고 난 뒤, 「ぜいたくを言えば」의 전치표현으로 후건에는 화자가 획득한 메달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이 이어질 것이 예측되어진다.

(62)의 「考えてみれば」, (63)의 「逆に言えば」, (64)의 「昔の言葉でいえば」, (65)의 「ぜいたくを言えば」 등의 전치표현은 후건의 내용을 미리 알리거나, 한정시키거나, 혹은 덧붙여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6) a. そして境といえば、低い、いけ垣があるだけだったから、トットちゃんは、かんたんに、通りを歩いてる人と、話ができるわけだったのだ。 (トットちゃん p.17)

b. そして境は、低い、いけ垣があるだけだったから、トットちゃんは、かんたんに、通りを歩いてる人と、話ができるわけだったのだ。

(67) a. 文学士と云えば大学の卒業生だからえらい人なんだろう。 (坊っちゃん)

b. 文学士は大学の卒業生だからえらい人なんだろう。

(68) a. 請求権問題についていえば、国交正常化の際に、すでに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だ。 (読売-2012年8月16日)

b. 請求権問題は、国交正常化の際に、すでに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だ。

(66a)는 「境といえば」에 이어 「낮다, 산울타리가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토토(トットちゃん)는 간단히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이다」로 「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67a)는 「文学士」에 대해 「대학 졸업생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68a)는 「청구권문제에 대해 말하면 국교 정상화일 때에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로 청구권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66~68)은 「~といえば」, 「~についていえば」의 형식으로 주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후건에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66b~68b)와 같이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인 「は」와의 교체가 가능하다.

「～と云えば」의 형식의 전치표현은 주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대비되는 사항 다음에 사용되기도 한다.

- (69) a. 「お菓子」と云えば、何か日本ふうのものを思い浮かべますが、 「ケーキ」と云えば、当然西洋ふうのものを感じます。 (学校-中2 p.302)
- b. 「お菓子」は、何か日本ふうのものを思い浮かべますが、 「ケーキ」は、当然西洋ふうのものを感じます。

(69a)는 「과자(お菓子)라고 하면 웬지 일본풍의 것이 떠오릅니다만, 케이크라고 하면 당연 서양풍의 것을 생각합니다」로 대비 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접속조사 「が」로 연결이 된 구문으로, 대비되는 사항인 「お菓子」, 「ケーキ」에 다음에 「～と云え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경우도 「～と云えば」를 「は」로 바꿀 수 있다.

- (70) 父親の話によれば、ドライアイスというのは空気に触れると白い煙になって跡形もなくなる氷だという。 (光村-中2 p.99)
- (71) 事典によれば、サボテンは、別名シャボテン・はおうじゅ・ささらさっぽうなどよばれている、サボテン科の多年生草本で、非常に種類が多く、二千から三千種ぐらいあるそうである。 (学校-中1 p.217)

(70, 71)은 전건인 「父親の話によれば」와 「事典によれば」를 근거로 하여 후건에 드라이 아이스와 선인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구문이다. (70)은 「～によれば、～という」, (71)은 「～によれば、～そうだ」로 전형적인 전문(伝聞)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によれば」의 형식의 전치표현은 후건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72) 金星は、大きさだけからいえば、地球によく似た星である。 (学校-中1 p.240)
- (73) 体力からいえばKよりも私の方が強いのですから、私はすぐ応じました。 (心)

(74) 話したり聞いたりするときのことば、つまり、話し手からいえば声になって出ることば、
また、聞き手からいえば耳に聞こえることばは、話しことばといわれます。

(学校-中1 p.254)

(72)는 금성에 대해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화자는 「크기」의 관점으로 금성에 대해 지구와 아주 닮은 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73)의 경우, 「체력」의 면의 각도에서 「K보다도 내가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74)는 구어(口語)에 대해 「화자의 관점에서는 소리가 되어 나오는 말 또는 청자의 관점에서는 귀에 들리는 말」이라고 화자의 관점과 청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이다.

「~からいება」의 전치표현은 후건에 서술되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전치용법은 「~てみれば」, 「~に言ება」, 「~でいება」, 「~をいება」의 다양한 형식으로 후건에 대한 예고, 한정,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と言ება」의 형식은 후건에 대한 주제를 나타내고, 「~によれば」의 형식은 후건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からいება」의 형식의 전치표현은 후건의 사항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IV. 접속조사 「ば」 구문의 특징

접속조사 「ば」는 「と」, 「たら」, 「なら」와 용법상 서로 교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교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ば」의 특징은 「と」, 「たら」, 「なら」의 형식과의 교체가 불가능한 구문에서 더욱 분명해진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IV장에서는 타 형식과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접속조사 「ば」만을 취할 수 있는 경우와 접속조사 「ば」를 사용하게 되면 비문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 접속조사 「ば」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ば」만 사용가능한 구문

접속조사 「ば」로 연결이 된 구문을 「と」, 「たら」, 「なら」로 교체하게 되면 비문이 되는 경우로 이러한 구문인 경우는 접속조사 「ば」만이 지니는 독자적인 용법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한 구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75) a. ほんの五分で出てくることもあれば、三十分も待ちぼうけすることもあった。
b. * ほんの五分で出てくることもあると、三十分も待ちぼうけすることもあった。
c. * ほんの五分で出てくることもあったら、三十分も待ちぼうけすることもあった。
d. * ほんの五分で出てくることもあるなら、三十分も待ちぼうけすることもあった。

(光村-中3 p.73)

(75)는 「불과 5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삼십분이나 기다림에 지쳐 맥이 빠진 경우도 있었다」로 두 가지 사항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문말은 「あった」로 과거형을 취하고 있다. 즉 열거용법에서 문말의 시제가 「夕형」인 경우는 「ば」를 제외한 「と」, 「たら」, 「なら」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こそ」를 동반하여 한정조건을 나타내는 용법도 「ば」만이 사용되어진다.

- (76) a. あなたをお友だちだと思えばこそ頼むのよ。
b. * あなたをお友だちだと思うとこそ頼むのよ。
c. * あなたをお友だちだと思ったらこそ頼むのよ。
d. * あなたをお友だちだと思うならこそ頼むのよ。 (ノ一下 p.52)

(76)은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예요」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이유를 전건에서 말하고 있는 구문이다. 「~ばこそ」은 「ば」에 「こそ」가 결합한 형태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이유로」라는 의미로 이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다.¹⁷⁾ 「こそ」와 결합하여 전건이 후건의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 또한 「たら」, 「と」, 「なら」는 사용되지 않는다.

- (77) a. 君がいればこそ今までなんとかやってこれたんだってね。
b. 君がいるからこそ今までなんとかやってこれたんだってね。 (ノ一下 p.201)
- (78) a. 生きる力があればこそ痛むのだ。
b. 生きる力があるからこそ痛むのだ。 (学校-中2 p.156)

「~ばこそ」와 같이 이유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からこそ」가 있는데, (77, 78)에서처럼 「~ばこそ」구문을 「からこそ」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77~78)의 문말은 각각 「頼むのよ」, 「やってこれたんだ」, 「痛むのだ」로 「のだ」의 형식이다. 이와 같이 「~ばこそ」구문에서 「~ばこそ~のだ」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접속조사 「ば」만이 사용가능한 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 (79) a. 考えれば考えるほど、不安になってしまう。
b. * 考えると考えるほど、不安になってしまう。
c. * 考えたら考えるほど、不安になってしまう。
d. * 考えるなら考えるほど、不安になってしまう。 (教育-中3 p.80)

17)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p.499.

(79)는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져 버린다」로 전건에 「考える」를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그 상황이 진행에 동반하여, 후건의 「不安になる」라는 또 다른 상황도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다.¹⁸⁾ 「~ほど」를 동반하여 전건의 상황의 진행에 따른 후건의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たら」, 「と」,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18)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p.482.

4.2 「ば」 사용불가 구문

4.2.1 문말표현의 제약에 따른 사용불가 구문

「ば」구문에서 전건이 상대적인 사항인 경우,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다를 경우는 문말표현에 제약이 없다.

- (80) 時間があれば手伝ってください。 (田中寛 : 2010. p.167)
(81) 悲しみがあれば、その悲しみを聞いてあげたい。 (光村-中1 p.75)
(82) それが知りたければ家に来てみる。 (光村-中2 p.101)

(80~82)의 전건은 「時間があれば」, 「悲しみがあれば」, 「知りたければ」로 상대적인 사항이며 후건의 문말에 의뢰, 희망, 명령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 (83) 一人が海に落ちれば全員が作業をやめねばならぬ。 (教育-中2 p.96)
(84) 誰かが行けば、私も行きます。 (教育-中1 p.312)

(83)은 전건의 주체가 「一人が」, 후건의 주체가 「全員が」로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다르고 전건이 「한명이 바다에 떨어지면」로 동적인 사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말에 의무표현인 구문이다. 그리고 (84)는 「誰か」, 「私」로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다르고 전건이 「誰かが行けば」로 동적인 사항인 구문으로 문말에 의지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전건이 동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문말에 의무, 의지 표현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85) a. * 帰宅すれば、必ずうがいをしなさい。 (庵功雄 외 3인 : 2002. p.222)
b. 帰宅したら、必ずうがいをしなさい。

(85)는 「귀가하면 반드시 양치질을 하세요」로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동일하다. 그리고 전건의 술어가 「帰宅する」로 동작성 술어이고 후건의 문말이 명령형인 구문이다. (85)와 같이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동일하고, 전건이 동적인 사항을 나타내는 경우에 명령표현 등이 나타나면 「ば」구문은 사용할 수 없다.

4.2.2 후건이 부정적 결과인 구문

「ば」의 구문은 후건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전건에 나타내는 표현이다.

- (86) a. まじめに練習すれば、僕の話し方も向上するだろう。
b. 本をたくさん読めば、僕の話し方も向上するだろう。
c. 先生の講演を聞けば、僕の話し方も向上するだろう。 (光村一小5 p.93)

(86)은 「성실히 연습하면 나의 화법도 향상할 것이라고 한다」로 후건에 제시된 화법의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을 전건에서 말하고 있다. 후건을 성립시킬 수 있는 조건은 (86b, 86c)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화자는 그 중 「まじめに練習すれば」에 초점을 두고 발화하고 있다. 즉 후건의 성립에 대한 화자의 염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86) ' a. * まじめに練習すれば、僕の話し方も向上しないだろう。
b. * まじめに練習すれば、試験に落ちるだろう。

(86) '의 「僕の話し方も向上しない」, 「試験に落ちる」와 같이 후건에 화자의 염원과 상반적인 내용이 오게 되면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ば」의 구문은 화자가 바라고 있는 후건의 성립요소를 전건에서 서술하는 표현이므로, 「ば」의 구문에서는 후건에 화자의 염원을 나타내는 바람직한 결과가 오는 것 많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인 경우는 「ば」는 사용되기 어렵다.

4.2.3 발견의 용법

- (87) a. * ご飯をたくさん食べれば、体がふとりました。
b. ご飯をたくさん食べたら、体がふとりました。 (鈴木忍 : 1978)

- (88) a. * 下宿へ帰れば母からの電報が来ていた。
b. 下宿へ帰ると母からの電報が来ていた。
c. 下宿へ帰ったら母からの電報が来ていた。
d. * 下宿へ帰るなら母からの電報が来ていた。 (三四郎)

(87)과 (88)은 「ご飯を食べた」, 「下宿へ帰った」라는 사실이 실현된 후,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실로 「ば」구문은 사용할 수 없다. 鈴木忍는 「ば」구문의 특징인 일반적이고 초시간적인 표현으로 의도하기 위해서는 (87a)를 「ご飯をたくさん食べれば、体がふとります。」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¹⁹⁾

「ば」형식의 기본적인 성격은 전건이 성립하면 필연적으로 후건이 성립한다고 하는 인과관계로 일반적이고 초시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건에 의해 일어난 결과가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발견의 용법에는 「ば」구문은 사용할 수 없다.

19) 鈴木忍(1978), pp.209~221.

V. 접속조사 「ば」 구문의 사용빈도

V 장에서는 조사 대상을 일본 중학교 국어교과서로 하여 접속조사 「ば」의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ば」의 중심용법을 파악하고 조건표현과 비조건표현의 사용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여 각각의 의미용법과 호응하는 문말표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는 日本文部省検定済教科書인 日本中学校国語教科書を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光村図書出版株式会社, 中学校国語教科書 1학년, 2학년, 3학년 (이하 光村図書)
 教育出版株式会社, 中学校国語教科書 1학년, 2학년, 3학년 (이하 教育出版)
 学校図書株式会社, 中学校国語教科書 1학년, 2학년, 3학년 (이하 学校図書)

5.1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

일본 중학교 국어교과서 중 3社에서 출간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1>, <표2>와 같다.

<표 1> 각 교과서별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1)

출판사		光村図書			教育出版			学校図書			합계
학년 (中)		1	2	3	1	2	3	1	2	3	
조건 표현	일반	1	6	5	8	3	1	5	3	9	41
	반복·습관	7	0	3	1	3	1	3	4	3	25
	가정	23	26	39	36	28	13	40	41	42	288
	확정	0	4	2	5	3	1	5	7	4	31
	반사실	2	2	1	3	0	1	1	7	2	19
비조건 표현	열거	1	0	2	1	2	6	1	9	7	29
	전치	0	5	8	9	11	15	11	10	16	85
합계		34	43	60	63	50	38	66	81	83	518

<표 2> 각 교과서별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2)

(단위:%)

		光村図書	教育出版	学校図書	합계
조건 표현	일반	8.8%	7.9%	7.4%	7.9%
	반복·습관	7.3%	3.3%	4.3%	4.8%
	가정	64.2%	51%	53.5%	55.6%
	확정	4.4%	6%	7%	6%
	반사실	3.6%	2.6%	4.3%	3.7%
비조건 표현	열거	2.2%	6%	7.4%	5.6%
	전치	9.5%	23.2%	16.1%	16.4%

접속조사 「ば」의 사용빈도수의 총수는 学校図書가 230예로 가장 많았으며 教育出版가 151예, 光村図書가 137예였다. 3社 교과서 모두 조건표현에서 가정조건의 사용빈도율이 光村図書가 64.2%, 教育出版이 51%, 学校図書가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반사실조건이 光村図書가 3.6%, 教育出版가 2.6%, 学校図書가 4.3%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조건표현의 전치용법이 가정조건 다음으로 높은 사용빈도율을 보이고 있다.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빈도를 보면, 조건표현이 78%이고 비조건표현이 22%로 나타났다. 접속조사 「ば」는 주로 조건표현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실제 사용양상에서 보면 비조건표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조건표현에서는 가정조건, 일반조건, 확정조건, 반복·습관조건, 반사실조건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정조건이 55%를 웃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접속조사 「ば」의 주된 용법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비조건표현에서 전치용법으로 가정조건에 이어 두 번째로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たとえば」, 「いわば」²⁰⁾은 출현 빈도가 높았으나 부사로 간주하여 전치용법에서는 배제시켰다.

20) 例え、同じ鳥をさして言うはき、日本語では「トリ」と言いますが、英語では「バード」と言います。

(教育-中1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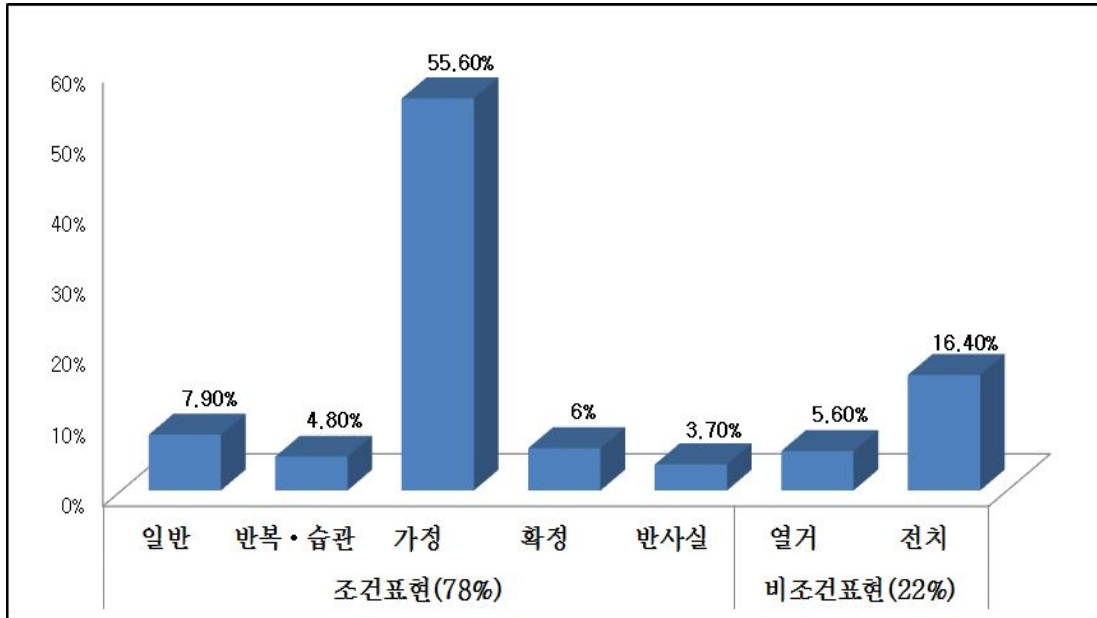
雪の結晶のことを、こういう自然の、いわば精神的な意味での恵みという立場から、少し話してみよう。

(学校-中3 p.119)

<표 2>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접속조사 「ば」의 사용빈도

(단위:%)



5.2 호응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빈도

접속조사 「ば」와 호응하는 문말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89) この機会をのがせば、次がいつかは分かりません。 - (確言)

(光村一小6 p.226)

(90) へたな絵でも、いっしょうけんめいかけば、少しはたしになるでしょう。 - (概言)

(学校-中1 p.162)

(91) もし夜明けまでにつれなければ、おまえの妹の命はないのだ。 - (説明)

(学校-中1 p.319)

(92) 三年間一生懸命やれば何かできる。 - (可能)

(光村一中1 p.272)

(93) 行きたければ、行きなさい。 - (命令) (教育-中 p.302)

(94) 悲しみがあれば、その悲しみを聞いてあげたい。 - (希望) (光村-中1 p.75)

(89~94)에서 알 수 있듯이 접속조사 「ば」의 구문은 다양한 문말표현과 호응하고 있다. 하지만 접속조사 「ば」의 의미용법에 따라 문말표현에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서 접속조사 「ば」의 의미용법별로 호응하는 문말표현과 호응하지 않는 문말표현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 <표 3>은 각 교과서별 접속조사 「ば」와 호응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각 교과서별 접속조사 「ば」와 호응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빈도

	조건표현					비조건표현		합계	
	일반	반복·습관	가정	확정	반사실	열거	전치		
합계	41	25	288	31	19	29	85	518	100%
確言	35	23	145	23	17	24	56	323	62.4%
可能			29			1	3	33	6.4%
疑問			16		1			17	3.3%
命令			2					2	0.4%
禁止								0	0.0%
許可			1				1	2	0.4%
依頼			2				3	5	1.0%
当為	5		15					20	3.9%
意志			1					1	0.2%
勧誘			3					3	0.6%
願望			1					1	0.2%
概言		1	36	6		2	12	57	11.0%
説明	1	1	36	2	1	1	10	52	10.0%
比況			1					1	0.2%

일반조건에서는 確言, 当為, 説明의 문말표현과 호응하고 있으며, 조건표현의 반복·습관조건과 확정조건, 그리고 비조건표현의 열거용법과 호응하는 문말표현은 確言, 概言, 説明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사실조건은 대부분 確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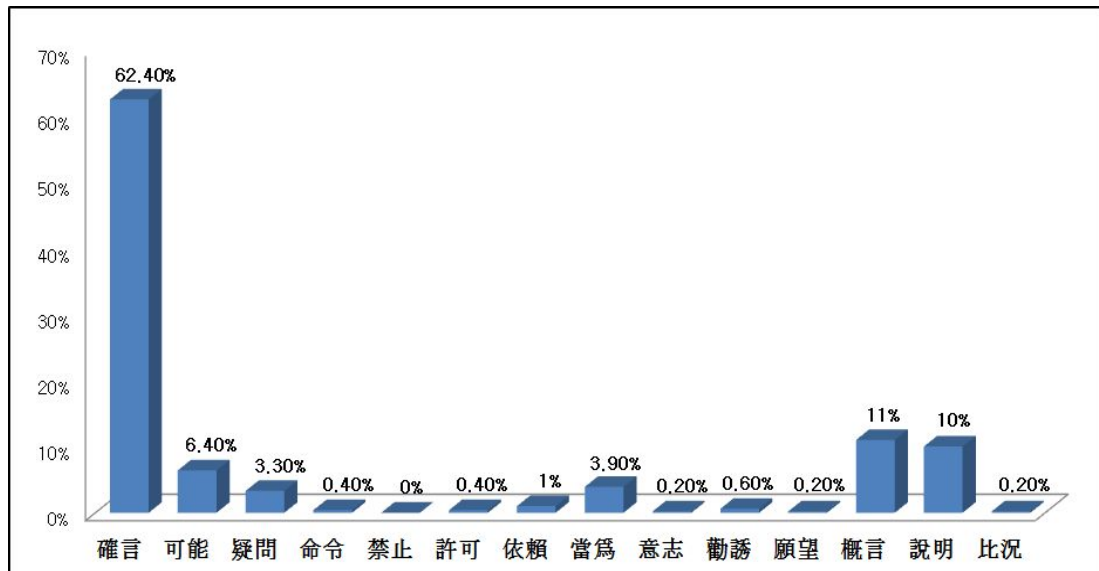
표현과 호응하고 있으나 疑問과 說明의 표현도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치용법 또한 確言의 표현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외에도 可能, 許可, 依頼, 概言, 說明 등의 문말표현과도 호응하고 있었다. 가장 다양한 문말표현의 양상을 보인 것은 가정 조건으로 確言, 概言·說明, 可能의 순으로 사용빈도율이 나타나고 있었다.

접속조사 「ば」은 確言, 意志, 可能, 許可, 命令, 疑問, 依頼, 希望, 推測 등의 다양한 문말표현과 호응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確言이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그림 2>은 <표 3>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접속조사 「ば」와 호응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빈도

(단위:%)



접속조사 「ば」의 구문과 호응하는 문말표현의 사용빈도는 確言의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概言, 說明이 각각 11%, 10%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밖의 可能, 疑問, 當爲를 제외하면 사용빈도율이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조사에서 접속조사 「ば」의 구문은 금지의 문말표현과 호응하고 있지 않았다. 금지표현은 후건에 화자의 염원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는 특징을 지닌 「ば」구문과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VI. 결론

접속조사 「ば」의 구문을 전건과 후건이 인과관계에 있는 조건표현과 인과관계에 있지 않은 비조건표현으로 구분하여 의미상, 구문상의 특징과 의미용법별 사용빈도 그리고 각 의미용법과 호응하는 문말표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접속조사 「ば」에 대해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ば」는 조건표현과 비조건표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 2) 전건과 후건이 인과관계로 결합하는 조건표현을 나타내는 「ば」의 용법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반복·습관조건, 가정조건, 확정조건, 반사실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① 「ば」의 일반조건은 전건의 성립에 의해 필연적이고 초시간적으로 후건이 성립하는 조건표현이다. 따라서 문말에는 「夕형」은 올 수 없고, 「ル형」만이 나타난다.
 - ② 반복·습관조건은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대해 전건의 성립하면 습관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사항에 대한 경우에는 문말에 「ル형」, 과거의 사항에 대한 경우에는 문말에 「夕형」이 나타난다.
 - ③ 가정조건은 전건은 미실현의 사항과, 실현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후건은 미실현의 사항을 나타낸다. 전건이 미실현 사항에 대한 조건표현인 경우는 전건의 성립이 불확실한 경우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성립하게 되는 사항을 가정하는 용법이 있다.
 - ④ 확정조건은 발화시점 이전에 이미 전건과 후건이 실현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건의 보는 행위, 듣는 행위 등으로 인해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항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건의 술어는 「見る」 「聞く」 등으로 지각동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전건은 후건의 계기, 근거 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 ⑤ 반사실조건은 전건에 사실과 반대되는 사항을 가정하여 후건에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는 구문으로 문말에는 「のに」, 「～だろう」, 「～かもしれない」,

「~はずだ」, 「ところだ」 등을 동반하여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불만족과 유감을 나타낸다. 또한 바라지 않은 과거 사항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도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 3) 비조건표현은 전건과 후건이 인과관계를 지니지 않는 구문으로 열거용법과 전치용법이 있다.
 - ① 열거용법은 유사한 사항 혹은 대조적인 사항을 나열하여 서술하는 표현으로 전건에 인물·사물의 존재나 속성의 유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ある, いる」 등과 같은 상태성 술어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② 전치용법은 후건에 대한 예고, 한정, 보충 설명을 하거나, 주제 혹은 근거 제시, 관점 등을 나타내었다.

- 4) 일본어 「と, たら, なら, ば」 표현 중에서 「ば」 구문이 지니는 독자적인 특징을, 「ば」 만 사용가능한 구문과 「ば」 사용불가 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① 열거용법에서 문말의 시제가 「夕형」인 경우는 「ば」를 제외한 「と」, 「たら」, 「なら」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こそ」를 동반하여 이유를 강조하는 표현에서는 「たら」, 「と」, 「なら」은 사용할 수 없고, 「ば」만이 가능하다.
 - ③ 「~ほど」를 동반하여 전건의 진행에 따른 후건의 진행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ば」이외에 「たら」, 「と」, 「なら」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 ④ 전건과 후건의 주체가 동일하고 전건이 동작성 술어인 경우는 문말에 명령 등의 표현이 오면 「ば」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ば」의 구문은 화자가 바라고 있는 후건의 성립요소를 전건에서 서술하는 표현이므로, 후건에 화자의 염원을 나타내는 바람직한 결과가 오는 것 많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인 경우는 「ば」는 사용되기 어렵다.
 - ⑥ 전건에 의해 일어난 결과가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경우를 나타내는 발견의 용법에는 「ば」구문은 사용할 수 없다.

- 5) 「ば」구문의 의미용법별 사용빈도와 문말과의 호응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 ① 사용빈도 면에서 조건표현이 78%, 비조건표현이 22%로 나타났으며, 의미용법 별로 가정조건, 전치용법, 일반조건, 확정조건, 열거용법, 반복·습관조건, 반사실조건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② 호응하는 문말표현과의 사용빈도는 確言의 비율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概言, 說明이 각각 11%, 10%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밖의 可能, 疑問, 當為를 제외하면 사용빈도율이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금지표현과는 호응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新村出(1987), 『広辞苑第三版』, 岩波書店
- 日本語教育学会編(2005), 『新版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 松村明(1982), 『日本文法大辞典』, 明治書院
- 砂川有里子 외 7인(1998),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 くろしお出版
- 国立国語研究所(1951), 『現代語の助詞・助動詞-用法と実例-』, 秀英出版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1993),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 _____ (1997), 『新日本語文法選書2 複文』, くろしお出版
- 有田節子(1993), 「日本語条件文研究の変遷」, 益岡隆志編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 _____ (1999), 『プロトタイプから見た日本語の条件文』, 言語研究 第115号, 抜刷
- 坂原茂(1993), 「条件文と語用論」, 益岡隆志編 『日本語の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 前田直子(1996), 「バ, ト, ナラ, タラ -仮定条件を表す形式-」,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複文・連文編-』, くろしお出版
- _____ (2009), 『日本語の複文-条件と原因・理由文の記述的研究-』, くろしお出版
- 蓮沼昭子・有田節子・前田直子(2001), 『日本語文法セルフマスターシリーズ7条件表現』, くろしお出版
- 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 2 -意味と使い方』, 東京:角川書店
- 庵功雄 외 3인(2002),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ネットワーク
- _____ (2002), 『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ネットワーク
- 吉川武時(1989), 『日本語文法入門』, アルク
- 鈴木忍(1978), 『教師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③ 文法1 -助詞の諸問題1-』, 凡人社
- 田中寛(2004), 『日本語複文表現の研究-接続と叙述の構造-』, 白帝社
- _____ (2010), 『複合辞からみた日本語文法の研究』, ひつじ書房

- 宮島達生・仁田義雄(1996),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下)-複文・連文編-』,
くろしお出版
- 豊田豊子(1985), 『「と, ば, たら, なら」の用法の調査とその結果』, 日本語教育56号
- 仁田義雄(1987), 「条件づけとその周辺」『日本語学』 6巻 9号, 明治書院
- _____ (2009), 「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その周辺」『日本語文法著作選』 第2巻,
ひつじ書房
-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2008), 『現代日本語文法6 第11部 複文』, くろしお出版
- 野田尚史・益岡隆志・佐久間まゆみ・田窪行則(2001), 『日本語の文法4 複文と談話』,
岩波書店
- 森田良行(1980), 『基礎日本語2 意味と使い方』, 東京: 角川書店
- 浜崎なおみ(1999), 「「ば」条件文の制約に対して文脈が与える影響」, 『計量国語学』
22巻 1号, 東京: 計量国語学会
- 田仁淑(1989), 「条件節をともなう複文」, 『東京外国語大学 日本語学科年報11』, 東
京外国語大学外国語学部日本語学科研究室
- 堀恵子(2004), 「バ条件文の文末制約を再考する-日本語母語話者に対する適格性判断
調査から-」『麗澤大学大学院言語教育研究科論集 言語と文明』 第
2巻
- 竹内則晶(2006), 『条件表現「と」「ば」「たら」「なら」の研究』, 仁荷大学校大学院

<예문출전>

[日本小説]

- 夏目漱石(1991), 『こころ』, 集英社文庫, 出処: 青空文庫 (心)
_____ (1992), 『ちくま日本文学全集 夏目漱石「坊っちゃん」』, ちくま文庫, 出処:
青空文庫 (坊っちゃん)
_____ (1951), 『三四郎』, 角川文庫クラシックス、角川書店, 出処: 青空文庫
..... (三四郎)
村上春樹(1988), 『ノルウェイの森(上)』, 講談社 (ノ-上)
_____ (1988), 『ノルウェイの森(下)』, 講談社 (ノ-下)
黒柳徹子(2009), 『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 講談社 (トットちゃん)

[新聞社説]

- 毎日新聞 2012年02月～2012年09月 (毎日)
読売新聞 2012年05月～2012年09月 (読売)
朝日新聞 2012年05月～2012年09月 (朝日)

[日本国語教科書]

- 小学校教科書(2011), 国語(1年～6年), 光村図書出版株式会社 (光村一小)
中学校教科書(2012), 国語(1年～3年), 光村図書出版株式会社 (光村一中)
_____ (1987), 国語(1年～3年), 教育出版株式会社 (教育一中)
_____ (1971), 国語(1年～3年), 学校図書株式会社 (学校一中)

<Abstract>

A study on conjunction 「ば」 in Japanese

Choi, Hee Sook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upervisor Professor Kim, Seung Han

Conjunction 「ば」 means conditional expression of pre-condition and post-condition together with 「と」, 「たら」 and 「なら」. Each type has continuity and also has independent feature. There are irreplaceable cases, and even though it is available, it gives different meanings. For this reason, there is difficult to divide it 「と」, 「たら」, 「なら」 and 「ば」 in accordance with situation.

Conjunction 「ば」 is used not only for conditional expression between pre-condition and post-condition but also for unconditional phrase. This study examined its semantic and syntactic meaning. To clar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onjunction 「ば」, it examined 「ば」 available cases and unavailable cases. Finally, it examined the frequency of use of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expression to see how it is actually used, followed by the ending expression corresponding to meaning method.

1) 「ば」 could be divided into conditional expression and unconditional expression. As for the usage of 「ば」 that shows causal relation between pre-condition and post-condition, it examined general condition, repetitive and habitual condition, subjunctive condition, confirmative condition, and semi-factual condition. For unconditional expression, it has enumerating and prepositional methods that have no causal relation between pre-condition and post-condition.

2) In the conditional expression, general condition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pre-condition and conditional expression for post-condition where condition is set beyond time. Therefore 「タ type」 cannot be placed at the end of a sentence but, 「ル type」 appears only. Repetitive and habitual condition expresses habitual and repetitive cases on the figures or events if the pre-condition is set. As for the end of sentence on the current events, 「ル type」 appears, while for the past events, 「タ type」 appears. The pre-condition of subjunctive condition has non-realized matter, and realized matter. Post-condition shows unrealized matter. If the pre-condition is on the unrealized matter, there are cases of uncertain establishment of pre-condition, and there are cases of establishment i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confirmative condition is a matter realized the pre-condition and post condition before the utterance point which expresses cases of new recognition due to watching or listening. Accordingly, the predicate of pre-condition are mainly verbs of perception such as 「見る」 and 「聞く」 and pre-condition expresses momentum and foundation of post-condition. Semi-factual condition is an expression of hope of the speaker by supposing opposite facts to pre-condition. At the end of sentences it accompanies 「のに」, 「～だろう」, 「～かもしれない」, 「～はずだ」 and 「ところだ」 showing discontent and regret of the speaker. It also expresses a feeling of relief of not realizing the unwanted past.

3) The enumerating method in the unconditional expression enumerates similar or contrasting matters. As precondition shows the existence of figure or object or attributes, there are many cases of status predicate such as 「ある, いる」 which has equal relation between pre-condition and post-condition. And the prepositional method is not causal relation between pre-condition and post-condition, but shows notice, restriction and supplementary explanation in post-condition.

4) The unique feature of 「ば」 sentence was examined in only 「ば」 available sentences and 「ば」 unavailable sentences. In the enumerating method, if the tense of the end of sentence is 「タ type」 it cannot use 「と」, 「たら」, 「なら」 except for 「ば」. In an expression of stressing by accompanying 「~こそ」 and expressing progress change of post-condition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pre-condition, only 「ば」 was available. However, if the subject between pre-condition and post-condition is same and pre-condition is motional predicate, it cannot use 「ば」 sentence when there is imperative expression at the end of sentence, there is undesirable result to post-condition, and when there is a discovery method.

5) The frequency of 「ば」 sentence and corresponding relation with the end of sentence was examined. In terms of frequency of use, conditional expression was 78% while unconditional expression was 22%. And in terms of semantics, subjective, prepositional, general, confirmative, enumerating, repetitive and habitual, and semi-factual condition were used from a highest order. As for frequency of use with corresponding end of sentence, the confirmative expression was highest with 62.4%, while introductory and explanatory expressions took 11% and 10% respectively. Besides, the frequency of use was less than 1% except for possibility, interrogative and oughtness. And it is not corresponded with prohibited expression.